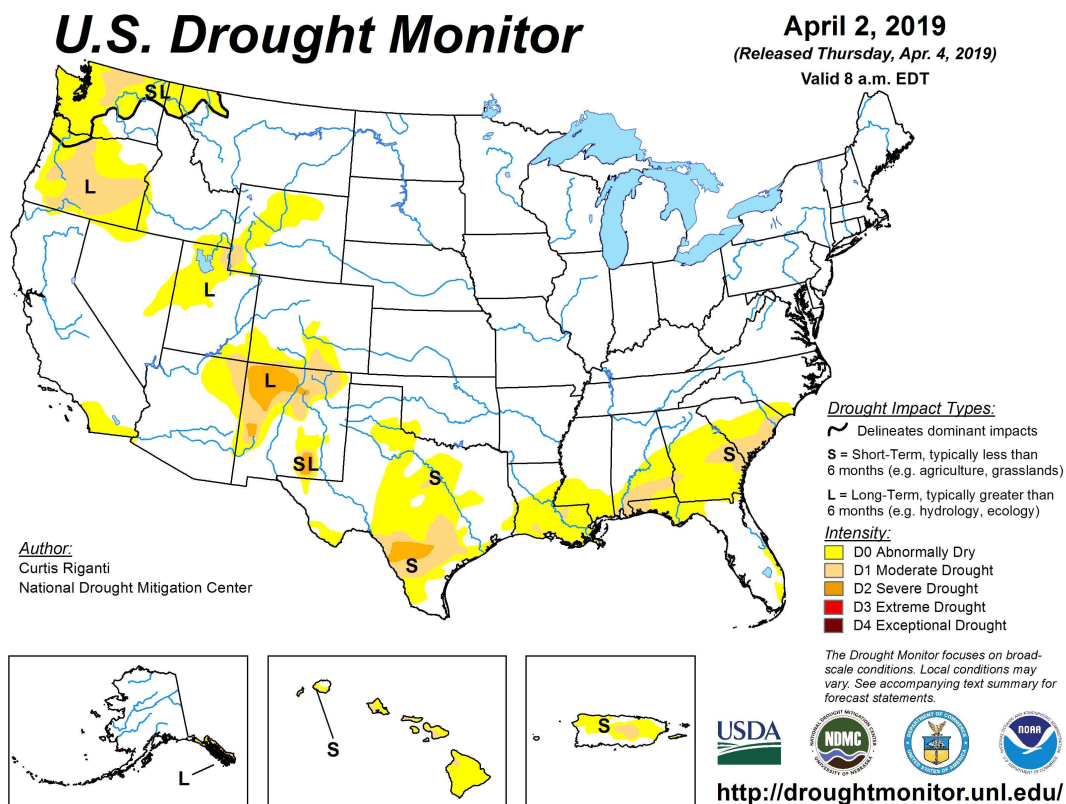


4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54)

□ 미국 기후 현황(3/31~4/06)

남부와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상당한 강우가 내렸는데 양 지역의 일부 지점에서는 4 인치가 넘기도 하였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렸고, 예외적으로 남서부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였다. 남부에 내린 소나기로 단기간의 건조가 완화되었고, 겨울 곡물들과 막 올라오고 있는 여름 작물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포장 작업은 다소 늦춰졌다. 4월 2일에는 남북 캐롤라이나 일부에서는 젖은 눈이 내렸다. 북동부 일부에서 3일 후에 눈이 다소 내렸다. 먼서쪽에서는 일정 기간 차가운 날씨와 가벼운 비가 내려서 중서부, 특히 서부 옥수수 벨트 쪽은 포장 작업이 제한되었다. 반면,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대평원 북쪽 절반까지는 주간 평균 온도가 여러 곳에서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하지만 남부와 동부 전역은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서부와 중부 멕시코 연약 주들 일부에서는 평년 대비 5° F 이하였다. 4월 2일에는 가벼운 결빙이 중앙 루이지애나처럼 먼 남쪽에서 일어났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평원의 따뜻한 날씨로 겨울 밀 성장이 촉진된 반면 미국 서부의 북쪽 절반에서는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다. 특히, 늦은 봄비로 태평양 북서부부터 로키산맥 최북단까지 건조한 3월의 영향이 완화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4/1~4/7)

4월 7일까지 한 주 동안 캐롤라이나 델타 지역과 옥수수 벨트 서쪽 일부에 상당한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3인치 이상이었다. 남서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었다. 남부와 동부 일부에서는, 플로리다와 북동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온도가 평년대비 5° F 정도 낮았다. 태평양 북서부와 로키산맥 북부의 일부에서는 온도가 평년 대비 10° F 이상이었다.

□ 세계 기후 현황(3/31~4/06)

■ 유럽: 남서 유럽에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렸던 반면 남동부에는 건조와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 전역에 내린 소나기 (5-60 mm)로 가뭄 걱정이 덜어졌고 토양 수분을 개선시켜서 겨울 곡물의 출수에 도움이 되었다. 더 동쪽에는 이탈리아에 중간~강한 비 (25-100 mm)가 내려서 가뭄을 경감시켜주었고 겨울 작물이 생식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대로 헝가리와 발칸반도에서는 건조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60일간 기록된 강수량은 정상의 10-50%에 불과했다. 장기간의 가뭄 걱정은 헝가리에서 가장 심하였고 90일 강수량이 정상의 25-60%였던 불가리아 북부는 이보다는 좀 덜했다. 북유럽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잦은 소나기와 온화한 날씨 (정상보다 1-2° C 높은)로 겨울 작물의 영양 성장에 유리했으나 독일, 폴란드, 발트해 국가들은 정상보다 최대 6° C 높아서 밀과 유채의 녹화와 초기 발달을 촉진했다.

■ 구소련(서부): 온화한 날씨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건조 문제가 우려되기는 했지만, 겨울 밀 발달이 촉진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중부 전역의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3° C 높아서 밀의 녹화를 촉진하고 러시아의 불가 지역에 남아 있던 설피빙원을 녹이고 있다. 흑해연안 근처의 평균 온도는 평년 대비 약간 낮아서 작물이 영양 발달 초기 단계에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는 단기 건조가 발달하여 60일 총강수량은 정상의 25-50%였기 때문에 이후 몇 주간 주목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 밀은 대개 5월 중순경 핵심적인 생식성장 단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건조 피해가 극히 적을 것이다.

■ 동아시아: 남동 중국 전역에 소나기가 많이 내려서 (25-100 mm 또는 그 이상) 벼에게는 유리한 수분 수준이 유지되었지만 다른 작물들의 포장에는 연못이 생겨날 정도였다. 비가 계속 오면서 연초부터 현재까지 총강수량은 대부분의 동남부 성에서 평균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양쯔 계곡에는 이보다는 비가 덜 내려서 (25 mm 이하) 생식 성장중인 유채에게 이로웠다. 유채에게는 작물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다음 몇 주간 건조한 조건이 필요하다. 한편, 건조하고 계절에 맞지 않게 평년 대비 5° C까지 높아진 따뜻한 날씨 때문에 동중국에서는 영양성장 중인 밀에게 수분의 필요가 증가했다. 대다수의 밀에게 물을 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비가 내린다면 환영받을 것이다.

■ 호주: 최근 내린 이로운 비가 지나간 후에 남퀸슬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되돌아왔다. 소나기 (5-25 mm)는 대부분 국지적었고 해안가에만 내려서 목화, 수수, 밀 생산 지역의 동쪽에 머물렀다. 건조한 날씨로 목화와 수수의 수확은 촉진되었지만 가뭄 피해가 심한 여름 작물들은 수량 전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이 오래되고



심한 가뭄에서 회복되고 표토의 조건이 곧이어 심게 되는 겨울 밑에 적당하게 되려면 충분히 적실 정도의 비가 내려야 할 것이다. 대개 겨울 작물 심기는 4월 중순에 시작하여 5월과 6월까지 계속된다. 퀴슬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의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약간 낮아서 (정상보다 최대 1° C 낮음) 정상 이상으로 높았던 최근 날씨로 인한 염려를 덜었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번 주의 많은 기간 동안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여름 작물을 빨리 건조하여 수확하기에 좋았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서쪽에서부터 에트레 리오스까지 대부분의 위치에서 10 mm 이하의 강수량이 기록되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동부와 코르도바에서 다소 높은 양 (10-25 mm 또는 그 이상)이 기록되었다. 정상보다 2-3° C 높은 주간 평균 온도가 건조한 추세에 동반되어 거의 모든 곳에서 여러 날 동안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대 절반 이하에 도달하였고 밤 최저 기온은 결빙 이상을 유지했다. 한편 강한 비 (25-100 mm, 지역적으로는 150 mm 까지)가 중앙 코르도바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 차코, 포르모사를 지나기까지 내렸고 코리엔테스 내부와 주변에는 다소 적당한 비 (10-50 mm)가 내렸다. 북부 쪽의 수분은 궁극적으로는 겨울 곡물에 이롭겠지만 여름 작물, 특히 목화의 성숙에는 때가 맞지 않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4월 4일 현재 84% 수확되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67% 수확이 완료되었다. 옥수수는 남쪽 생산 지역에서 포장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가 수확되었다.

■ 브라질: 소나기 덕분에 남쪽 옥수수 벨트에서는 건조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2차 작물이 생식 단계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수분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주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 건조 추세 이후에 비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내렸다. 하지만 가장 심한 비는 서쪽의 농장 지대에 집중되었고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의 대부분에 있는 사탕수수와 커피 지역은 물론이고 파라나의 동쪽 구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총강수량이 10 mm 이하)가 계속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콩과 1차 파종 옥수수는 4월 1일 현재 각각 89와 86% 수확되었고 2차 파종 옥수수는 52%가 생식 단계에 도달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정부가 4월 4일 현재 콩 수확량이 52% 완결되었다고 보고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49%였고 평균은 51%였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생산 지역에서는 비가 다소 줄었지만, 고이아스와 마토 그로소, 토칸틴스, 바히아에 있는 인근 장소들에 있었던 좀 더 건조한 조건들 (총강수량 25 mm 이하)과 대조적으로 마토 그로소 북쪽과 북동부 내륙 지역의 많은 곳 (그 중에서도 특히 토칸틴스 북부, 피아우이, 마란하오)에서는 중간-강한 (25-50 mm 또는 그 이상) 비가 내렸다.